시계절 명문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인터넷회원 평일 최고 3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광주 '순항' 전남 '주춤'

광주 '단체' 선전…전남 '기록' 부진

광주는 대회 4일째인 11일 검도가 3개 부문 모두 우승하는 신기원을 이룩했고, 단체종목의 선전에 힘입어 상위입상을 향한 순항을 했다. 반면 전남은 투기와 기록종목의 부진으로 전체적인 득점에 힘을 싣지 못했다.

한국 육상의 '기대주' 김덕현(조선대)은 한국신기록을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육상 세단뛰기에서 대회 6연패를 달성했고, 박태경(광주시청)도 남자 일반 110m 허들에서 역시 국내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다.

한규철(전남연맹)은 수영 남자일반 개인혼영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며 2관왕에 등극했다. 손경용(광양고)과 진채린(한국체육대)은 각각 태권도 남고와 여자일반에서 역시 금메달을 따냈다.

이날 현재 광주는 금 23개, 은 19개, 동 23개를 확보했고, 전남은 금 34개, 은 22개, 동31개를 따냈다.

▲광주= 박은경은 호남대체육관에서 열린 체조 여고부 이단평행봉에서 13.300으로 금메달을 따냈으며 도마에서도 13.987점을 획득 4관왕에 올랐다.

엄수완(광주선발),양정임(광산구청)은 각각 태권도 남자일반 웰터급과 여자일반 웰터급에서 금빛 발차기를 성공시켰다. 또 장용호(광주시체육회)는 우슈 남자일반 태극권전능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찬미(전남여고)는 사격 여고부 공기소총 개인에서 금 총성을 울렸고, 권성훈(광주체고)은 유도 남고 55kg급 이하에서 금빛을 메쳤다. 김효빈(대산주택개발)도 체조 여자일반 마루운동에서 13.075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 축구 금호고와 탁구 동강대학은 각각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남=이지은(전남제일고)은 염주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고부 자유형 200m에서 2분03초05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김태호(광양시청)는 우슈 남권전능에서 29점을 확보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세영(전남체고)은 육상 여고부 400m에서 57초27로 금빛질주를 펼쳤으며 김승일(전남도청)은 체조 남자일반 철봉에서 14.650점으로 금메달을 따내 개인종합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유화정·이경희·전귀애(고흥실고)는 볼링 여고부 3인조전에서 2천561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민(목포대)은 육상 여대부 원반던지기에서 대회신을 획득했으나 은메달에 머물렀다. 기대주 유진아(나주시청)도 사이클 여자일반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편 박태환은 이날 수영 남고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7초82의 대회신기록으로 대회 두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시 검도 서석고 조선대 북구청 새 역사 쓰다

체전 사상 최초로 고교·대학·일반 전종목 금 싹쓸이

광주 검도가 전국체전 검도사상 최초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기적'을 이뤘다.

광주검도는 지난 9일 서석고등학교가 고등부에서 전력열세를 딛고 25년만에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첫 단추를 잘꿰며 기세가 오른뒤 조선대학교는 대학부에서 10일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어 11일 일반부가 동메달만 따내도 검도 단체 종합우승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부 광주 북구청 검도팀은 이진성(34), 오길현(28), 임동력(27), 박상수(30), 김현(26), 김태호(34), 김동욱(26), 문성록(31)등 대학시절부터 전국대회 단체전·개인전 등에서 수차례 우승했던 검도계의 강자들로 구성돼 있어 금메달까지 기대됐다.

운명의 11일. 북구청 검도팀은 후배들의 선전에 부끄럽지 않게 결승에서 경기선발을 4-0으로 제압하고 전국체전 검도사상 어떤 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종합우승을 일궈냈다.

이들 광주 검객들은 이번 체전을 대비해 9월부터 광주서석고 체육관에서 모두 합숙을 하며 새벽 1시간,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야간 1시간 30분 지옥훈련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북구청 검도팀 모두가 서석중·고 출신 선·후배로 뭉친 이들의 팀웍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전력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 됐다.

정동진 서석고 감독은 광주의 기적같은 종합우승에 대해 "우선 서석고와 조선대학교 체육관이 조성돼 있고, 서석고-조선대-북구청으로 연계된 최강의 팀이 있는데다 최용훈 광주검도회장, 김종율 전무이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어루어져 이뤄낸 결과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승컵 44년만에 교체

전국체육대회의 낡은 우승컵(왼쪽)이 44년만에 화려한 새 트로피(오른쪽)로 교체됐다.

1963년에 제작된 기존 트로피는 순은 4천400g으로 이뤄진 컵과 나무 받침대로 만들어졌는데 4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쪽이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다. 새 트로피(순은 4천462g)는 올림픽의 상징인 월계수잎이 성화모양의 몸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김덕현이 11일 열린 육상 남자 일반부 세단뛰기에서 착지를 한 후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이 경기 꼭! 보세요

박태환 3관왕 도전 염주수영장

신기록 도전이 계속된다.

전국체전 닷새째인 12일에는 여자 수영 스타 정슬기(서울)가 두 번째 기록 단축에 도전한다.

지난 9일 평영 100m에서 한국기록을 작성한 정슬기는 이날 광주 염주수영장에서 주 종목인 여자일반부 평영 200m에 출전한다.

평영 200m는 아시아기록과 1초68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간격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마린보이' 박태환(경기고·서울)도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계영 400m에 출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간다.

'미녀 펜싱 스타' 남현희(서울)는 오후 4시 동강대체육관에서 여자일반부 플뢰레에 출전, 오지은(전남)과 세계 수준의 검객 대결을 선보인다.

'신궁' 임동현(한국체대·충북)은 오전 9시 30분부터 염주 양궁장에서 열리는 양궁 남대부 올림픽 라운드에서 금빛 활 시위를 당긴다.

월드컵경기장 육상장에서 열리는 남대·일반부 200m에선 22년 묵은 한국기록 넘기에 나선다.

200m도 장재근이 1985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세운 20초41이 20년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다.

200m 남대부는 오전 10시 50분 예선전, 오후 1시 결승전을 갖고, 남자일반부는 오전 10시 30분 예선, 오후 12시 50분에 결승전을 치른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하는 경보 20km 결승전에는 '아름다운 꼴찌'로 잘 알려진 영암 출신 박칠성(전남)이 출전, 한국기록 경신과 함께 금메달 사냥을 동시에 노린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서 최하위의 수모를 당했던 박칠성은 올해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세계최정상급 '워커'들과 겨뤄 15번째로 골인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히어로

고흥실업고 여자 볼링

"내년엔 3연패 이뤄야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3연패를 이루겠습니다"

고흥실업고등학교 유화정(3년·**왼쪽**), 전귀애(2년·**오른쪽**), 이경희(2년·**가운데**)는 11일 광주 더원볼링장에서 열린 볼링 여고부 3인조전에서 우승,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에 오른 소감을 담담히 밝혔다.

지난해 4월 6명으로 창단한 고흥실고는 6개월 후 제87회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3인조전 금메달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다.

고흥여자중학교 출신인 이들은 소년체전 금메달 리스트로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됐지만 고교에 오르자 마자 금메달을 목에 걸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특히 고흥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볼링장등 연습시설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을 딛고 얻어낸 금메달이어서 기쁨이 두배였다. 이들은 올 대통령배, 협회장기, 전국체전 3인조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 3인조전에서는 무적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유화정은 "개인전 보다는 3인조전과 5인조전에서 이상하게 실력이 발휘된다"며 "중학교부터 맞춰온 팀웍이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글·사진=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화제의 인물

'육상 대들보' 김덕현·박태경 신기록 실패…금메달에 만족

박 태 경

한국 육상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광주 육상 2총사, 김덕현과 박태경이 11일 기대했던 한국신기록은 쏟아내지 못했지만 광주에 금메달을 보탰다.

김덕현은 최근 세계선수권등 잦은 해외경기로 체중이 3kg정도 빠진 상태여서 한국신기록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최근 진로를 광주시청 육상팀으로 결정해 마음의 짐을 던 김덕현은 올 해 목표에 대해 "17m30㎝인데 지금 몸 상태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신기록은 진작 깨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안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김덕현은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 연습했는데 대회가 없을 때엔 하루 5시간 가량 연습한다. 목표가 아시아 기록이니만큼 기록 경신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태경은 서울 출신이지만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정도로 광주사람이 다 됐다. 스승인 심재용 감독과의 끈끈한 인연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광주에 있는 것이 더 편할 정도가 됐다.

박태경은 110m허들에서 82~85회까지 4연패를 했다. 86회에 은메달로 주춤했으나 다시 지난해와 올해 2연패를 달성했다.

박태경은 올 아시아선수권 4위, 일본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 4위등 세계기준에 근접하는 가파른 기록 향상을 보이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경은 "우리 고장 광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 좋다. 기록보다는 올림픽 예선 통과가 최우선 목표다. 지난주에 일본에서 귀국했는데 하루에 4시간 강훈련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관중 몰이 스타 -역도 장미란

가볍게 3관왕 '번쩍'… 관객들 탄성

'여자 헤라 클래스' 장미란(24·경기)이 전국체전 역도경기에서 가볍게 3관왕 바벨을 들어올렸다.

장미란은 1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정광고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역도 여자일반부 75kg이상급 경기에서 경기대표로 출전, 인상 126kg과 용상 174kg을 들어올려 합계 300kg으로 종전 합계기록보다 2kg 많은 대회신기록을 달성, 8년 연속 3관왕을 차지했다.

하지만 장미란은 지난달 3연패의 위업을 쌓은 태국 치앙마이 세계선수권대회의 피로가 풀리지 않은 듯 자신이 기록한 세계기록 319kg(인상 138kg·용상 181kg)에는 도전하지 않았다.

장미란의 금메달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11명이 출전한 75kg이상급 경기에서 장미란이 신청한 1차 시기 바벨의 무게는 270kg(인상 116kg·용상 154kg)으로 합계 부문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충북대표 박형인 선수의 최종 기록보다도 27kg 많은 상태였다.

이날 경기의 마지막 선수인 장미란이 소개되자 장내에 있던 300여 명의 관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양손에 탄산마그네슘 가루를 묻히고 경기장에 들어선 장미란이 짧은 외마디 기합을 토해내며 바벨을 들어올리자 관중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와~"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오늘 주요 경기

▲농구=남·여고(오전 11시·수피아여고체육관), 남·여일반(오전 11시·구동체육관)

▲레슬링=남고, 남자일반, 여자일반(오전 9시 30분·조선대체육관)

▲배구=남고(오전 10시·전남대체육관), 남대, 남자일반(오전 10시·광주여상체육관), 여고, 여자일반(오전 10시·송원여상체육관)

▲배드민턴=남·여고, 남·여대, 남·여일반(오전 10시·광주대체육관)

▲복싱=고등·대학·일반(광주교대다목적회관)

▲볼링=남·여고(오후 2시·더원볼링장), 남·여일반부(오후 2시·ABC볼링장)

▲수영=남·여고, 남·여 일반(염주수영장)

▲씨름=일반부(오전 10시·광주공고체육관)

▲양궁=남고, 남대, 남자일반(오전 9시 30분·염주양궁장)

▲역도=남자일반(오전 10시·정광고체육관)

▲유도=여자일반(오전 10시·살레시오고체육관)

▲육상=트랙·필드(오전 10시·월드컵경기장)

▲인라인롤러=남·여고, 남·여일반(오전 10시·수완지구시민종합운동장)

▲축구=남고(광주공무원연수원축구장), 남대(무등경기장축구장), 남자일반(호남대축구장), 여고(이상 오후 1시·과학기술원축구장)